광주·전남 지역 전법단 최초 출범

광주 · 전남지역에 최초로 지역전법단이 출범해 호남지역 포교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광주전남지역 전법단은 10월 6일 광주 무각사에서 공식 출범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자문인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 · 전남 전법단은 8월 광주 무각사 불교회관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출범회의를 통해 광주(광주, 담양, 화순, 장성), 전남(목포, 나주, 무안, 순천)으로 활동지역을 선정했으며 인터넷 카페(cafe.daum.net/kjjunbub)를 개설했다. 또, 매월 1회 팀별 모임을 갖고 포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있다.

광주 · 전남 전법단장은 광주 길상사 도제 스님(광주), 나주 심향사 원광 스님(전남)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상언 기자

여수·순천사건 희생자를 위한 영산대재

한국근현대사의 큰 사건인 여수 · 순천사건 희생자를 위한 영산대재가 펼쳐진다.

전남 순천 보승사(주지 영도)는 10월 16일 금당공원에서 여수 · 순천사건 희생자와 임진왜란, 6 · 25전쟁 순국선열에 대한 영산대재와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영산재에는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의 추모법문과 범패의식, 국악공연, 살풀이 등이 함께 진행된다.

영도 스님은 이번 영산대재에 앞서 "한국사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을 문화축제 호남을 적시다

10월 산사축제 시즌 미황사 괘불재 · 화엄사 영성음악회

가을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산사축제 시즌이 돌아왔다. 호남지역 사찰들은 10월을 앞두고 저마다 특색있는 산사 축제를 마련하고 불자들을 맞을 채비에 분주하다.

해남의 미황사(주지 금강)는 제11회 괘불재를 10월 23일 개최한다. 괘불재는 오후 1시 미황사가 소장하고 있는 가로 5m, 세로 12m 크기의 대형 괘불탱화(보물1천342호)를 이운(移運)해 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만물공양, 통천, 수륙재, 괘불봉안, 두레상 한솥밥의 순으로 진행된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6시부터는 인간문화재 박양애 선생의 해남들노래와 함께 지리산 악양동네밴드, 한국가곡협회 회원 성악가, 남도소리꾼 이병채, 가수 허설 등이 신명나는 노래를 선사한다. 이어 미황사 진법군고단의 강강술래, 전통줄다리기 등 어울림 한마당도 펼쳐진다. 오후 10시 미황사 자하루에서는 스님들이 대중들에게 직접 수행이야기를 펼쳐놓는다. (061)533-3521


미황사 괘불재는 매년 5000여 대중이 참석하는 호남지역 대표문화행사다.

같은 날인 23일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국내 최대 영성음악회인 2010화엄제를 개최한다. 화엄제는 세계적인 영성 음악가들이 지리산 노고단 아래 화엄사에 모여 전쟁 · 기아 · 인종 등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영성음악으로 선보이는 국제음악제다.

'길눈뜨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에는 Silvia Nakkach(브라질), Michael Knapp(미국), Batsaihan Chultem(몽 골), Ariunbold Dashdorj(몽골), 이애주, 정재일, 바람곶 등이 참가한다.

부대행사로는 음악제와 연계해 23~24일 화엄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명상하는 '챈팅의밤', 향기로운 차와 함께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를 일깨우기 위한 영성 음악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24일 오후 1시부터는 영성 음악가 Silvia Nakkchi와 함께하는 영성 음악 워크숍이 개최된다. (061)782-7600

노덕현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향기가 가득한 문화예술의 축제"

제 3회 선운문화제

선운사(주지 법만)는 시와 음악, 감동이 넘치는 제3회 선운문화제를 개최됐다.

9월 25~26일 '시와 음악이 흐르는 선운사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선운문화제에는 5000여 대중이 참가했다. 1400년의 전통을 이어온 보은염 이운식을 시작으로 선운문화제의 식전행사로 범주 스님의 대형 달마 퍼포먼스, 달마도 및 고현(조선대 미대교수) 현대불교회화전 개막식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양희은, 백영규, 선운사 동국사 연합합창단, 고창 국악단 등이 출연해 선운사의 가을을 노래해 감동을 전했다. 이어 도종환 시인과 꽃무릇 시화전에서 입상한 이슬아 씨 등이 선운사와 관련된 시를 낭송해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선운사 동국사 연합합창단이 선운사의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오후 진행된 선운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에서는 노래와 춤, 악기연주 등 분야에 22팀이 참가해 다양한 지역 청소년들의 넘치는 끼를 발산하는 멋진 무대가 됐다.

또 성보박물관과 만세루 등에서는 백파 스님. 석전 영호 대종사 독립운동자료전과 백파사상연구소 학술대회, 전통차(선운사 차) 시음회, 지역민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등이 개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환우치료비 전달 광주불교승보회

광주지역 조계종 스님들의 친목모임인 조계종광주불교승보회(회장 일명)은 9월 10일 광주전남 생명나눔실천본부(본부장 현지)에 소아암 백혈병 환우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승보회 회원 20여 명이 지난 10여 년간 월회비의 일정 금액 등을 모은 것이다.

승보회 회장 일명 스님은 "자비실천이란 희망과 고난을 나누는 것이다. 작은 정성이지만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현지 스님은 "어렵고 힘든 환우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 환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요긴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다문화 가정으로 한국에 정착한 람김안씨

"많은 이들도 저처럼 행복하길"

"4년 만에 고향에 가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부등켜안고 있으니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생각이 들데요."

다문화 가정으로 한국에 정착한지 8년 된 람김안(여, 38)씨의 친정고향인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아파트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호치민시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간 람김안 씨가 광주의 불교단체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의 프로젝트인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도움으로 8월 14일 4년 만에 친정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람김안씨가 모국을 방문하기전 광주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설봉 스님과 함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평소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응엔 반 티, 어머니 람 무오 이씨는 멀리 타국의 시집을 보낸 장녀 람김안씨와 손자, 손녀를 보자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랑김안씨의 부모님은 지난 2007년 방문 이후 4년만의 만난 딸의 얼굴을 하염없이 보고, 만지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24일 간 친정나들이는 길지 않았다. 6살, 7살 된 아들과 딸에게 엄마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은 무엇보다 즐거웠다. 랑김안씨 가족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바다를 보고, 시골 할머니에게도 갔다. 워터파크에서 더위를 식히고, 베트남 스님인 큰삼촌도 만났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의 모든 것을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준 불교단체와 스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남편이 일을 하다 크게 다쳐, 베트남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람김안씨는 2003년 한국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식당 사장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31살 다소 늦은 나이에 한국에 온 그녀는,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데 힘들었다. 딸을 타국으로 떠나보내면서 "남의 나라 가면 앞만 보아라, 옆을 보지 말고 신념대로 살아라"고 한 어머니 당부의 말은 유일한 힘이 됐다.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주변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았다. 잘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만족하면서 더욱 열심히 살았다. 그녀는 한국에 와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그녀가 평소 신앙생활을 하는 광주 대광사의 총무 설봉 스님은 그녀에 대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애들 교육도 엄격하게 시키는 모범주부"라고 칭찬했다.

람김안씨는 조만간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다. 람김안은 "외국인 엄마를 뒀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진행한 이번 '다문화 가정 친정나들이' 행사는 4월 본지가 후원한 다문화아카데미의 수익금과 단체, 개인후원금을 모아 실시됐다.

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제8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9월 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0일 (음, 9월 3일)
  - 3재 : 양력 10월 24일(음, 9월 17일)
  - 5재 : 양력 11월 7일 (음, 10월 2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천도재 준비관계로 미리 접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약천사 방생법회 : 2010년 11월 28일 (음, 10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